

사진그림엽서로 본 식민지조선에서의 국가신도 체제 선전과 실상 조선신궁 사례를 중심으로

The Propagation of a State Shinto System in Colonized Joseon based on Photo and Picture Postcards

저자 (Authors)	한현석 Han, Hyeonseok
출처 (Source)	일본문화연구 63 , 2017.7, 27-48(22 pages) Japanese Cultural Studies 63 , 2017.7, 27-48(22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아시아일본학회 The Association of Japanology in East Asi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06455
APA Style	한현석 (2017). 사진그림엽서로 본 식민지조선에서의 국가신도 체제 선전과 실상. 일본문화연구, 63, 27-48
이용정보 (Accessed)	동아대학교 39.113.137.*** 2020/04/25 16:2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사진그림엽서로 본 식민지조선에서의 국가신도 체제 선전과 실상*

— 조선신궁 사례를 중심으로 —

한 현석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조선신궁을 대상으로 한 사진그림엽서(繪葉書)를 중심으로 식민지조선에서 국가신도가 선전된 방식을 분석한 것이다.

사진그림엽서는 1905년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였으며, 제국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당위성 확보와 선전을 위한 매체로도 활용되었다. 조선신궁의 창건은 식민지조선이 본격적으로 국가신도 체제로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선신궁의 이미지는 식민지조선을 재현하는 사진그림엽서의 주요 도안으로 생산·유통됨으로써 국가신도의 선전에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신궁의 사진그림엽서에 나타나는 특징을 5가지(① 신사와 조선의 이미지 조합, ② 도리이(鳥居), ③ 구도, ④ 참배객과 벚꽃, ⑤ 캡션)로 분류하고,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식민지조선에서 국가신도 체제가 선전되었던 방식과 실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키워드 : 사진그림엽서, 조선신궁, 국가신도, 신사, 선전, 식민지, 동화.

목 차

서론

제1장 조선신궁과 국가신도

제2장 사진그림엽서 속 조선신궁

결론

* 이 논문은 2016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NRF-2016S1A5A2A03925848).

서론

제국주의가 황금기를 맞이할 무렵인 1900년을 전후한 시기, 사진그림엽서(繪葉書)¹⁾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다. 사진그림엽서는 신문, 잡지, 서적 등과 함께 제국주의를 재현(再現)하는 강력한 매체들 중 하나였다. 특히 사진과 엽서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사진그림엽서는 사진이 주는 사실감을 바탕으로 큰 호응을 얻었고, 잡화점이나 여행지의 기념품 가게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막강한 미디어로서의 과급력을 가지게 되었다(권혁희 2005:31, 35).

일본에서도 1900년대 초반부터 국민의 창출과 통합 그리고 제국주의의 선전을 위한 매체로서 사진그림엽서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였다. 특히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에는 전쟁을 기념하는 기념엽서가 발매되어, 천황과 장군의 이미지가 대량으로 생산·유통되었는데,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각종 기념엽서는 발행 전날부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浦川和也 2005:162).

한반도를 관통해 만주로 이어지는 철도망은 일본인들의 철도여행을 증가시켰다.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는 조선의 근대화를 강조하고,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선전할 수 있는 이미지가 담긴 관광기념엽서와 팸플렛을 발행했다(부산근대역사관 2003:52). 관광기념엽서와 팸플렛에는 조선의 이미지를 사전에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정보(조선의 명승지 사진과 이미지, 철도 노선과 항로 등)가 담겨 있었으며, 이를 접한 관광객은 전체적으로 재생산된 조선의 이미지를 학습하게 되었다(권혁희 2005:68).

1940년 일본여성 작가 사다 이네코(佐多稲子)는 조선총독부 철도국의 초대를 받아 조선여행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부산에서 경성까지 기차로 이동한 후, 먼저 조선신궁을 참배하였는데(사다 이네코, 이한정·미즈노 다쓰로 편역 2009:341), 그녀의 경성관광은 철도국에서 발행한 관광기념엽서 등에서 소개된 장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진그림엽서의 선행연구는 ‘서구의 제국주의 시선을 차용하여 조선을 재현한 일본의 시선에 대한 분석’(권혁희 2003)·(최현식 2011),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1) 회엽서(繪葉書)는 사진엽서 혹은 그림엽서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사진과 그림이 각각 단독으로 혹은 함께 엽서에 배치되어 만들어진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보다 정확한 표현을 위해 사진그림엽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서 발행한 관제엽서(시정기념엽서)의 분석'(김국화 2015), '근대적 관광과 식민지 조선'(유승훈 2009)에 관한 사실들에 주목해왔으며,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이 사진그림엽서 속에서 재현된 다양한 대상²⁾과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³⁾

선행연구에서 주목했던 식민지조선의 관광엽서(예: '京城百景') 혹은 '조선총독부 시정기념엽서' 등의 사진그림엽서세트에는 조선신궁(朝鮮神宮)과 같은 신사를 도안으로 한 엽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식민지조선의 신사의 이미지는 그것을 접하는 이의 입장(일본인 혹은 조선인)에 따라 친근하게 혹은 그 반대로 이질적이고 강제적인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식민지조선의 신사는 사진그림엽서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었고, 또 무엇을 선전하려 했을까.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식민지조선의 신사를 도안으로 한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일제강점기 식민지조선에서 국가신도(國家神道)⁴⁾가 선전된 방식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무라카미 시게요시는 국가신도에 대해 "근대천황제국가가 만들어낸 국가종교이며, 메이지유신부터 태평양전쟁의 패전에 이르는 약 80년간에 걸쳐 일본인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村上重良 1970:1). 이소마에 준이치는 무라카미의 주장을 계승하면서 국가신도를 "신사를 매개로 성립되었던 천황제 내셔널리즘을 통해 일본국민을 교화하려는 전전의 사회체제로 간주"하고 있다(이소마에 준이치, 제점숙 역 2016:368). 본 논문에서는 국가신도에 대한 이소마에의 정의를 참고하여, 사진그림엽서 속 조선신궁을 매개로 식민지조선에서 진행된 국가신도의 선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메이지유신 이후 신사는 일본의 지역사회의 신앙을 대표하는 공간에서 일본이라는 국가를 상징하는 공간이며 국민적 교화를 위한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1910년 한일강제병합은 신사를 통한 교화가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되

2) 권혁희(2005:19-20, 55-62)에 따르면 19세기 말 제국주의는 인쇄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식민지의 풍경과 인종, 풍습, 심지어 해당지역의 동물까지도 이미지화하여 수집하였다. 고, 일본 역시 위와 같은 제국주의의 풍조를 답습하여 조선의 남녀노소, 백정, 해녀, 무녀, 기생의 체형, 복장 등을 촬영하여 사진그림엽서로 제작하여 판매했다.

3) 일본의 경우 사진그림엽서를 통한 근대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 주목한 연구가 눈에 띈다. (田邊幹 2002), (安田政彦 2006), (毛利康秀 2015).

4) 박규태(2006:55)에 따르면, 국가신도라는 용어는 1945년 12월 연합국 최고사령부(GHQ)가 발표한 '신도지령'에서 'State Shinto'라는 영문표기가 등장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는 계기가 되었고, 1925년 전 조선을 수호한다는 목적 속에서 완공된 조선신궁은 식민지조선을 국가신도의 체제 속에 보다 더 깊게 얽매게 하는 매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조선신궁의 상징적인 성격으로 인해 식민지조선의 신사에 관한 연구는 조선신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조선신궁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⁵⁾

① 조선신궁의 제신선정에 관한 연구(김대호 2003). 조선인의 동화를 위해 조선신궁의 제신(祭神)으로 단군을 모시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와 메이지천황(明治天皇)이 선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② 조선신궁의 입지 선정과 건설과정에 관한 연구(青井哲人 2005). 조선신궁의 건설 과정에 대해 경성이라는 식민지도시의 경관구성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③ 조선신궁과 재경성조선인 또는 일본인사회의 관계를 다룬 연구. 경성신사의 창건과 조선신궁의 관계를 살핀 연구(김대호 2009)와 일제강점기 조선신궁과 학교교육에 관한 연구(히우라 사토코, 이연숙 역 2016)를 꼽을 수 있다. ④ 조선신궁의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 조선신궁봉찬회(朝鮮神宮奉讚會)에서 발행한 조선신궁 사진집의 분석을 통해 일제의 시각매체를 통한 식민통치 방식을 살펴본 연구(김수진 2011)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문자자료의 분석에 치중한 결과, 당시 생산·유통된 신사의 이미지는 내용의 이해를 돕는 보조적 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다양한 매체(사진그림엽서, 잡지, 신문, 팸플릿 등)에 실린 신사의 이미지는 독자의 문자독해능력과 무관하게 제국일본의 신사정책 혹은 관광을 통한 식민지 지배의 선전 등의 영역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신궁의 이미지를 분석한 김수진의 연구는 향후 식민지의 신사연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김수진은 1937년 조선신궁봉찬회에서 편찬한 『恩賴-朝鮮神宮御鎮座十周年記念』에 담긴 350여장의 사진과 이미지를 분석하여 시각매체를 통한 일본의 식민통치 선전의 실상을 밝히고 있다. 본 논문 역시 조선신궁의 사진의 분류방식이나 이미지의 표현기법에 관해 참고한 바가 많다.

5) 조선신궁의 선행연구에 관해서는 김백영의 분류를 참고하였다. 다만, 사진그림엽서를 통한 조선신궁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관점에서는 달리 파악해야 할 부분이 있는 관계로 5가지로 분류된 내용을 4가지로 수정하여 정리하였다(김백영 2013:200).

그러나 『恩賴-朝鮮神宮御鎮座十周年記念』라는 자료가 비매품으로 봉찬회 회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제공된 것이었다는 점은 조선신궁의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다수의 대중들에게 미친 영향력을 언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생산·판매·유통된 사진그림엽서라는 매체에 주목하고, 엽서 속에서 재현된 조선신궁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국가신도가 선전된 방식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제1장 조선신궁과 국가신도

1945년 패전까지 일본이 한반도에 세운 신사들(神社와 神廟⁶⁾)은 총 995개였다(中島三千男 2013:18). 이 신사들은 크게 1910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에 세워진 신사들로 구분이 가능하다.

전자는 1876년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이후 개항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본인사회에 설치된 것으로, 재조선일본인들의 심신상 안녕을 위해 세워졌다. 대표적인 신사로는 부산의 용두산신사, 원산신사, 인천신사, 경성신사 등을 꼽을 수 있다.⁷⁾

후자는 1925년 전 조선을 수호한다는 의미로 세워진 조선신궁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1910년 이후 신사의 건립에서 주목할 부분은 신사보다 규모는 작지만 설립이 쉽고 같은 기능을 담당했던 신사의 건립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신사는 1917년 15개로 집계되었다가 1940년에는 423개로 급증하였다. 이는 1920년대 후반 조선신궁의 건립으로 신사에 대한 홍보의 증가와 1930년대 만주사변 이후 신사를 통한 조선인의 황민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윤선자 2011:122).

조선신궁은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를 포섭할 수 있는 신사로서 조선총독부에 의해 세워졌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신궁의 건립을 위해 1912년부터 1915년까지

6) 神社와 神廟는 둘 다 한국어로는 신사로 읽게 되지만, 일본어 발음으로는 진자(じんじゃ)와 신시(しんし)라고 읽힌다. 본문에서는 양자의 구분을 위해 편의상 神廟만을 일본어 발음에 따라 신시라고 표기한다.

7) 윤선자(2011:122)에 따르면 이 시기 설립된 신사의 구체적인 숫자는 1900년 이전 설립이 5개, 1905년 11월 통감부 설립 이전까지 7개, 1910년 8월 이전까지 24개에 이른다.

“조선신사신조영준비비(朝鮮神社新造營準備費)를 예산으로 계상하고, 제국의회의 협찬을 얻어 이를 확정”⁸⁾하였다. 1913년 이후부터는 “건축전문의 기술관을 内地(일본:인용자)로 파견”하여, “관국폐사(官國幣社)⁹⁾에 대해 구조, 형식 등을 조사”하도록 하였다(朝鮮總督府 1927:1-2).

1914년 조선총독부는 조선신궁의 제신으로 메이지천황을 택하였다. 그러나 제신을 1주 더 추가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조선인의 동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스사노오 미코토(素戔鳴尊) 등이 거론되었지만, 결국 조선총독부는 1918년 11월 28일 내비(內秘) 424호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김대호 2015:18-19).

조선신궁은 그 위치 또한 상징적인 곳이었다. 조선신궁의 건립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모두 8곳 이상의 후보지가 검토되었다(朝鮮總督府 1927:3). 1918년 조선신궁의 설계자이며 신사건축의 최고 권위자였던 이토 츠타(伊藤忠太)는 12가지의 기준¹⁰⁾에 맞춰 후보지를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한양공원을 신궁의 부지로 결정하였다(靑井哲人 2005:44-45).

이토가 위와 같은 기준을 내세운 것은 조선신궁 이전에 메이지신궁(明治神宮)의 부지선정과 설계의 경험과도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메이지신궁은 낮은 경사지에 만들어졌으며, 숲도 부족했다. 또한 도시와 가까워 매연과 소음으로 인해 신성하고 엄숙해야 할 신사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려웠다(김대호 2015:22). 때문에 이토는 조선신궁 부지의 선정 단계에서부터 가급적 단점이 될 요소들은 배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
- 8) 조선신궁은 최초 조선신사로 불리다가, 1925년 6월 27일 내각고시 제6호를 통해 ‘조선신궁’으로 사호가 변경되면서 붙여진 명칭이다. (윤선자 2011:118).
- 9) 메이지정부는 1871년 사격제도(社格制度)를 제정하여 일본 국내의 신사를 관국폐사(官國幣社)·부현사(府縣社)·향촌사(鄉村社)라는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신사는 이세신궁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형 체계를 형성하며 국가신도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
- 10) a. 제신과 하등의 관계가 있는 지역이며, 조금도 불상불결(不詳不潔)한 유서가 없을 것, b. 광활하여 군중을 모으기에 충분할 것, c. 울창한 숲을 가지며, 특히 배경에 숲이 있을 것, d. 약간의 고지대일 것, e. 가능한 남쪽을 면할 것, f. 가능한 맑은 물이 흐르는 장소일 것, g. 봄비는 시가지(市街地)와 격리되어 있을 것, h. 시가(市街)와 연결이 좋고, 특히 광활한 참배로(參道)가 있을 것, i. 주위의 시야를 가릴 어떤 것도 없을 것, j. 시가에 대해 화재의 우려가 있는 바람의 방향에 있지 않을 것, k. ‘프로스펙트’가 좋을 것(外觀: 원문), l. ‘아스펙트’가 좋을 것.(경내에서 사방의 조망이 좋을 것)

그리하여 1919년 7월 18일 내각 고시 제12호로 일본정부는 조선신궁을 경성부 남산에 창립하고, 사격(社格)은 관폐대사로 할 것을 공포한다. 1919년 7월 조선신궁의 창립이 허가된 것은 같은 해 3.1운동의 발생으로 혼란스러워진 조선인사회를 종교적·이데올로기적으로 수습하려는 의도와 함께 불안에 떨던 재조선일본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김대호 2003:32-34).

조선신궁의 조영 공사는 19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25년 10월 25일 진좌제를 거쳐 같은 해 12월 16일 공사를 완료했다(김대호 2015:26).

조선신궁의 경내는 서북서쪽을 바라보는 장방향으로 구성되었고, 상중하 3단의 공간과 3개의 광장으로 이루어졌다. 신원(神苑) 약 20만평, 도리이(鳥居) 5기, 등룡(燈籠)이 30기, 384층으로 이루어진 대석단(大石段)이 만들어졌다. 신궁으로 가는 길은 표참도(表參道), 동참도(東參道), 서참도(西參道) 세 가지가 있었고 주도로는 표참도였다(朝鮮總督府 1927:55, 김수진 2011:119 각주2). 이로써 조선신궁은 경성 어디서나 잘 보이는 남산자락에 위치하며 경성을 방문하는 많은 이들의 필수 방문지가 되었다.

1915년 8월 16일에 공포된 신사사원규칙(神社寺院規則)으로 식민지조선의 모든 신사는 창립과 존폐에 있어 조선총독부의 허가과 인가를 받게 되었다(윤선자 2011:117). 여기에 1925년 10월 조선신궁이 창건됨에 따라 식민지조선은 적어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신도의 체제 안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선신궁이 식민지조선 전체를 아우르며, 문명과 교화의 상징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었다. 그중 하나는 신사에 대한 조선사람들의 인식이었다. 일본인이 신앙하는 신사에 대해 조선사람들은 큰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또한 일본인들과 같은 경외심 같은 것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와 신사관계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구사하였다. 하나는 1930년대 후반 황민화정책으로 불리는 궁성요배, 신사참배강제와 같은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매체를 이용한 선전이였다. 다음에서는 그 후자에 해당하는 방법인, 사진그림엽서라는 매체 속에서 조선신궁이 선전된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2장 사진그림엽서 속 조선신궁

6월 15일 오후 7시 가랑비(細雨)가 비껴 부는 바람(斜風)에 섞여 차창을 아롱이는 남행차(南行車)에 올랐다. 익옥수리조합(益沃水利組合)¹¹⁾의 준공식에 초대받아 이리(裡里)에 가기 위함이지만, 호남의 땅을 처음 밟아보는 나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연선의 풍광을 살피고, 군산의 친구들을 찾고자 한다. (중략)식당차에서 음주당(飲酒堂)의 주최로 여흥이 있다고 했지만, 피로를 느껴 가지 못하고, 받아둔 익옥수리사업이라는 소책자와 사진그림엽서(繪葉書)[강조는 인용자를 찾아 예비지식을 얻고자 뒤적거리다가, 천안이라는 소리만 듣고 꿈 속(夢國)으로 들어갔다(후략)]¹²⁾

1923년 6월 15일 월봉(月峰)선생¹³⁾은 익옥수리조합의 준공식에 초대받아 군산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선생은 차창 밖의 풍경을 감상하며 과거의 일들을 회상한 후 익옥수리사업에 관한 “예비지식”을 얻기 위해 미리 받아 둔 사진그림엽서를 찾아보았다. 당시 사진그림엽서가 사업의 홍보용품이자 기념품으로 제작되었으며, 동시에 정보의 전달과 습득이 가능한 미디어의 기능도 겸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야마나카 하야토(야마나카 하야토, 황달기 역 2001:110-111)에 따르면 관광은 떠나기 전에 이미 목적지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어야만 하고, 여행객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관광지의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 떠난다고 했다.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조선신궁을 미리 접한 사람들은 엽서 속에서 재현된 조선신궁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그것을 확인하고자 경성으로 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신궁은 사진그림엽서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었을까.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본 연구를 위해 참고한 사진그림엽서들의 출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도록 한다. 사진그림엽서들은 ①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제국주의의 프로파간다와 식민지 표상’연구팀의 공동자료와 ② 해외신사적지에

11) 1920년 전라북도 군산 지역의 수리 관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임익 남부 수리 조합과 임옥 수리 조합을 합병하여 설립한 수리 조합이다. 「익옥수리조합」,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검색일: 2017.6.3.

12) 月峰生, 「群山紀行 一」, 『東亞日報』, 1923.6.24.

13) 월봉(月峰) 한기약(韓基岳) 선생은 조선일보의 편집장을 맡으며 식민지기 조선의 언론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였고, 신간회의 운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祖国독립과 言論에 몸바친 一生」, 『東亞日報』, 1981.6.19.

관한 데이터베이스(海外神社跡地に関するデータベース)에서 참고하였다. 분석을 위해 살펴본 사진그림엽서는 총 300여 장으로 그 중 조선신궁의 사진그림엽서들이 가진 특징을 토대로 분류한 결과, 대략 5가지의 방식(㉠ 신사와 조선의 이미지 조합, ㉡ 도리이, ㉢ 구도, ㉣ 참배객과 벚꽃, ㉤ 캡션)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선신궁 이외 신사의 사진그림엽서를 소개하며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1. 신사와 조선의 이미지 조합

첫 번째로 살펴볼 사진그림엽서는 조선신궁과 함께 식민지조선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조합되어있는 사례이다.

<그림 1>부터 <그림 3>까지의 사진그림엽서에는 조선신궁과 기생, 장승과 여인, 가마꾼의 이미지가 함께 조합되어 있다. 여기서 식민지조선은 약자(기생과 여인)의 모습, 원시적(장승)이고 전근대적(가마꾼)인 이미지로 재현되고 있다(부산 근대역사관 2003:136, 240, 284, 332). 반면 조선신궁은 이상과 같이 재현된 식민지조선의 이미지와 대비되어 제국일본을 표상하며, 문명의 상징으로 선전되고 있다.

다시 말해 엽서 속 조선신궁은 식민지조선을 대표하는 신사이며, 기생·여인·장



승·가마꾼으로 상징되는 조선(인)은 조선신궁에서 경신관념을 습득하여 충직한 신민으로 거듭나야하는 대상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평양신사와 조선의 선비(남성)가 등장하는 <그림 4>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사진그림엽서 속에서 신사와 식민지조선(인)의 이미지를 대비시켜 국가신도를 선전하는 방식이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도리이

<그림 5>와 <그림 6>은 조선신궁의 도리이를 강조하여 찍은 사진을 도안으로 제작된 사진그림엽서이다. 일제강점기 식민지조선의 신사의 사진그림엽서 중에는 도리이만이 강조된 엽서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도리이가 강조된 사진그림엽서 중에는 신사의 명칭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떤 신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인은 신도국교화정책을 비롯한 국가신도 정책 속에서 지

<그림 5> 조선신궁 동참도(東參道)



<그림 6> 조선신궁 제2도리이



<그림 7> 조선신궁의 도리이 스탬프



<그림 8> 평양신사의 도리이 스탬프



역사회의 신앙공간으로 기능했던 신사를 국민국가라는 확대되고 단일화된 영역의 상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때 도리이의 형상은 신사를 단순화한 상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며, 제국일본을 함께 연상시키는 기호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식민지조선에서도 신사의 입구를 장식하고 있는 도리이는 일본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선전되어야만 했는데, 이때 도리이가 강조된 사진그림엽서는 유용한 선전매체로써 활용되었을 것이다.

<그림 7>과 <그림 8>에서는 조선신궁과 평양신사의 사진그림엽서에 찍힌 도리이 모양의 스탬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스탬프는 관광인(觀光印)이라고도 하는데, 관광 문화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것이다. 스탬프는 지역의 명소나 지역적 특색이 드러나는 이미지를 단순화하여 제작되었는데(권혁희 2005:70), 신사에서는 대체로 도리이 모양의 스탬프를 사용하였다. 신사를 방문한 사람들은 해당신사의 기념품점에서 구매한 사진그림엽서의 앞면 혹은 뒷면의 여백에 도리이 모양의 스탬프를 찍어 신사를 참배한 기록을 남기고 기념했다.

이처럼 도리이가 강조된 사진그림엽서와 도리이 모양의 스탬프는 도리이의 모양만으로도 신사-제국일본을 자동적으로 연상할 수 있게 했을 것이며, 또한 신사를 참배할 경우 도리이 모양의 스탬프를 찍는 생활습관도 생기게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리이는 신사로 들어가는 문을 상징함과 동시에 그 모양자체가 신사-제국일본을 상징하는 기호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도리이의 형상으로 기호화된 단순한 이미지는 다양한 매체 속에서 재현되며 신사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3. 구도

<그림 9>와 <그림 10>은 조선신궁의 본전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384개로 구성된 계단을 도안으로 제작된 사진그림엽서이다. 이 엽서에서 주목할 점은 신사를 사진에 담는 방식이다. 피사체를 위에서 아래로 넓게 조망하며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을 부감(俯瞰)이라고 하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방식을 앙시(仰視)라고 한다. 위 두 가지의 엽서는 조선신궁의 계단을 앙시로 찍은 사진을 도안으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서론에서 소개한 일본인 여성 작가 사다 이네코는 조선신궁에 도착하여

〈그림 9〉 조선신궁의 계단



〈그림 10〉 조선신궁의 계단



계단을 올라다본 후 다음과 같이 소감을 남겼다.

신록이 물든 산 가운데에 위를 향해 넓고 곧게 뻗어있는 돌층계를 올라다보니, 마치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다. 돌층계 위에서는 신사의 지붕조차 보이지 않았고, 하늘에 떠있는 구름만 자옥했다.¹⁴⁾

사다는 신궁의 본전에 이르기도 전에 이미 하늘을 향해 서 있는 계단을 양시로 조망하며 신궁의 신성함을 체감했다. 즉 사진그림엽서 속에서 양시로 찍힌 조선신궁의 계단은 지상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늘에 닿아 있으며, 저 계단의 끝 너머는 범접하기 어려운 신성한 장소라는 인식을 전달한다.

뿐만 아니라 계단은 그 자체로 신성함의 상징이다. 계단이 있는 곳은 신화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중심은 제의적으로 구축된 성스러운 공간으로, 지상과 천상을 연결해주는 곳이다(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재실 역 1998:48-59). 사진그림엽서 속 조선신궁의 계단은 양시라는 구도를 통해 신궁의 신성함을 재현하고 선전하는 기능을 했다.

4. 참배객과 벚꽃

일본의 식민통치자들은 식민지조선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인들이 조선에 정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일본인들은 1876년 조선의 개항 직후부터 한반도로 건너와 생활했지만, 대부분이 원하는 만큼 돈을 벌면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며, 1884년 갑신정변을 비롯

14) 사다 이네코, 이한정·미즈노 다쓰로 편역 2009:341.

〈그림 11〉 조선총독부 시정기념엽서
조선과 일본의 아이들



〈그림 12〉 조선신궁의 참배객과 벚꽃



해 1894년 동학농민운동, 1919년 3.1운동 등과 같은 사건은 재조선일본인들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다. 때문에 식민지조선은 일본 본국에서 찾아온 일본인들에게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선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여기에 조선신궁을 찾은 참배객과 신궁 주변에 핀 벚꽃의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그림 11〉 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된 시정기념엽서의 하나로, 일본국기를 들고 있는 여자아이를 중심으로 조선과 일본의 아이들이 원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로 화합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김국화 2015:54).

〈그림 12〉는 조선신궁을 찾은 참배객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그림엽서로, 일본인들과 함께 흰 옷을 즐겨 입었던 조선인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의 풍경은 〈그림 11〉의 맥락에서 본다면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조선신궁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있으며, 동시에 식민지조선의 동화와 통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2〉에서는 벚꽃이 핀 조선신궁의 풍경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조선 일본인들은 조선의 개항 이후 일본인전관거류지 내에 신사를 세우거나 그 주변을 자신들에게 익숙한 풍경으로 조성하여 심신의 안정을 추구하였다.

청일전쟁 이후부터 일본인들은 신사 혹은 신사가 들어설 공원에 벚나무를 심기 시작 하였는데, 1897년 3월 17일 경성의 일본인거류민회에서는 이후 경성신사(京城神社)가 들어설 자리가 되는 남산공원에 벚나무를 600그루 심었다(김대호 2015:11). 러일전쟁 이후에는 한성을 비롯한 여타 재조선일본인의 거주지에서도 벚나무의 식수가 일반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青井哲人 1999:83).

〈그림 13〉 반릉신사와 벚꽃
(함흥신사 경내)



〈그림 14〉 춘천신사와 벚꽃



벚나무의 식수는 일본고유 혹은 지방고유의 경관창출이라는 의미 속에서 청일 전쟁 이후 일본에서도 크게 유행하였다(青井哲人 1999:83). 일본 교토의 경우 1868년 이전부터 산림이나 신사, 불교사원에 벚나무를 심었고, 메이지(1868년-1912년) 중기에는 비와호(琵琶湖)의 제방을 비롯해 교토시 동물원(1904년)과 같은 도시공간에도 벚나무를 심었다. 1915년에는 가모가와(鴨川)운하제방 위로 게이한전철(京阪電鉄)이 연장됨에 따라 그 연선을 따라서 벚나무를 심기도 하였다(岡本和己·小野芳郎 2016:1047).

〈그림 13〉와 〈그림 14〉는 조선신궁이 아닌 식민지조선의 다른 지역신사와 벚꽃을 담고 있는 사진그림엽서이다. 이러한 사례는 신사와 벚꽃의 이미지가 담긴 사진그림엽서가 하나의 형식으로 제작되어 유통된 사실을 보여주며, 인위적으로 선별된 일본식 풍경이미지를 이용하여 식민지조선의 풍경과 실상을 왜곡하는 선전도구로도 사진그림엽서가 이용되었음을 보여준다.

5. 캡션

일제가 식민지조선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일본=문명’과 ‘조선=야만’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였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신사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한 조선인은 야만인으로 간주되어 교화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림 15〉-〈그림 18〉과 같은 사진그림엽서는 신사란 무엇이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하는지를 이미지와 함께 설명글을 더하여 전달하고 있다.

〈그림 15〉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진 아래 설명글 특히 네모박스 속에 있는 내용이다. 네모박스의 왼편에는 조선신궁의 건축양식, 모셔진 제신 그리고 신사의

<그림 15> 조선신궁



<그림 16> 노기신사(경성)



사격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으며 박스 안에는 “점점 더 한층 삼엄한(森嚴いやまし)”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이는 도리이와 도리이를 지나 보이는 신사의 배전에서 보다 더 삼엄한 마음을 가지도록 선전하는 문구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6>은 경성에 소재한 노기신사의 사진그림엽서로, 원편 상단 네모박스 안에는 “삼엄한 기운이 짙은 노기신사(森嚴の氣深き乃木神社)”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그림 15>의 사례와 같이 신사의 분위기 혹은 신사에서 가져야할 마음이 짐을 설명글을 통해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선전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1927년 7월 30일, 광주군 석곡면 화암리에 사는 김창수, 김영수, 선판길 세 사람은 광주 시내에서 참외를 판 후 밤을 보낼 곳을 찾다가 광주 공원 구내에 있는 신사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새벽 신사의 관리인 일본인 모씨가 화를 내며 따지다가, 자신이 기르던 개를 데리고 나와 세 사람을 가리키며 물게 하여, 김창수는 허벅지와 정강이를 물렸다.¹⁵⁾ 신사를 단지 돈을 들이지 않고 하룻밤 보낼 수 있는 곳 정도로 여겼던 조선인들의 신사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신사에 대한 조선인의 무심한 태도는 신사를 참배하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25년 10월 15일 조선신궁의 진좌제 날 신궁의 신직 오가사와라 쇼조(小笠原省三)는 신궁을 찾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참배객들을 보며 양자의 서로 다른 신사의 참배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内地人(일본인:인용자)도 鮮人(조선인:인용자)도 속속 석단(石段)을 오른다. 그러나 배전(拜殿)의 앞까지 가면, 내지인은 탈모하고 절을 하는데,

15) 『朝鮮人三名을 畜犬식혀 咬傷』, 『東亞日報』 192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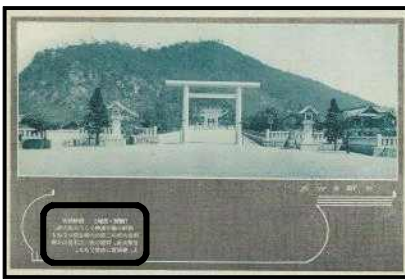
선인은 획 발길을 돌려 돌아간다.(이하 강조는 오가사와라) 나는 1시간 이상 배전의 앞에서 우두커니 서있었다. 그러나 조선인은 단 한 사람도 ‘참배’한 자가 없었다. 우리들(일본인: 인용자)의 상식으로 보면 ‘참배’란 배례(拜禮)를 하고 기원(祈願)을 하는 것이다. 선인은 ‘참배’가 아니라 ‘참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⁶⁾

선행연구에 따르면 1929년에 이르러서도 조선인들은 개인적으로 신사에 참배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고 한다(히우라 사토코 2007:130). 이와 같은 상황이니 조선인들이 신사를 참배하는 방법 심지어 신사에서 가져야할 마음가짐 같은 것을 알고 있을 리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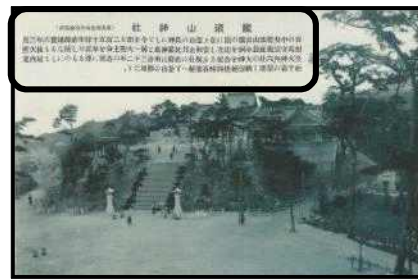
1915년 8월의 신문기사에서는 신사 앞 도리이(鳥居) 주변에 차부들이 소변을 보는 것을 지적(박진한·김창수 2013:255)하고 있는데, 실제로 1932년부터 1943년까지 조선신궁을 시작으로 부산의 용두산신사, 춘천의 강원신사 등에서 신직으로 근무했던 하야마 시즈오(早山静夫)는 가장 싫었던 것을 “(신사의) 성역이 주민의 분변(糞便)으로 더럽혀진 것”으로 회상했다(小笠原省三 편 2004:536).

<그림 17>은 조선신궁의 뒤편에 병풍처럼 펼쳐진 남산을 강조한 사진그림엽서로, 왼편 하단의 네모박스 안에 있는 내용의 전문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그림 17> 조선신궁



<그림 18> 용두산신사 (부산)



『조선·경성』 조선신궁

조선의 총수호신으로서 아마테라스, 메이지천황의 2柱의 대신(大神)을 모시고 있다. 관폐대사이며, 배전의 뒤에는 木窟山(현재의 남산:인용자)이

16) 小笠原省三 編述(2004), 『海外神社史』, ゆまに書房, p.73.

울창하여, 신역(神域)은 실로 청초(淸楚)하다.

<그림 17>의 설명글에서는 조선신궁의 배전 뒤편에 위치한 남산의 울창한 산세를 소개하며, 그로 인해 신궁의 전체적인 분위가 청초하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는 짧은 단어로 신사의 분위기를 전달하려 했던 <그림 15>와 <그림 16>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부산의 용두산신사 사진그림엽서인 <그림 1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단 네모박스 안에는 용두산신사의 역사와 6주의 제신이 모셔져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신사의 경내에는 오랫동안 노송(老松)이 진한 푸른빛을 내고 있고, 경치가 아름다워 참배객이 끊이지 않는 부산의 명승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 18>에서는 노송이 강조된 풍경사진과 설명을 통해 신사의 역사와 분위기를 선전하고 있다.

<그림 17>과 <그림 18>은 조선 고유의 풍경(남산과 노송)을 신사의 배경으로 삼아 설명글과 함께 제시하여 신사의 신성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선전하고 있는 사진그림엽서이다. 조선신궁을 비롯해 식민지조선에 세워진 신사를 신성하고 엄숙한 곳으로 선전하며, 신사에 대한 경외심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명글을 사용한 방식에서는 언어에 의존해 상황을 설명하려 했던 니시키에(錦絵)적인 재현방식을 엿볼 수 있다. 사진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신사의 역사나 상징성을 첨부된 설명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¹⁷⁾

한편, 신사를 신성하고 엄중해야 할 곳으로 여기지 않았던 일본인들도 있었다. 1924년 10월 17일 함흥군 서호면 서호리에 있던 신사에서는 젊은 일본인 남자가 자살한 사건이 벌어졌다.¹⁸⁾ 신사의 도리이에 목을 맨 것이다. 남자는 도청 관리였고, 여자는 일락정(一樂亭)이라는 유곽에서 일하는 창기였다. 둘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남자 쪽 부친의 극심한 반대를 이기지 못해 신사의 축제일에 자살을 택한 것이다. 죽음을 부정하게 여기는 신사에서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17) 이효덕(李孝德, 박성관 역 2002:37)에 따르면, 사진의 보급과 유통 그리고 영화의 등장으로 인해 메이지후반 이후 니시키에의 사용은 점차 사라져간다고 한다. 그러나 1920년대, 30년대 식민지조선의 신사의 사진그림엽서 중에는 엽서 속 풍경에 대해 글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이에 관한 분석도 흥미로운 것으로 보인다.

18) 『大祭日神社, '鳥居'에 日男女 縊首情死, 『東亜日報』, 1924.10.20.

했다는 것에서 두 사람이 품었던 커다란 실망감과 분노를 느낄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사진그림엽서 속 설명글은 신사의 분위기나 신사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선전하는 하나의 방식이었고,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까지도 교화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일제강점기 조선신궁을 중심으로 한 사진그림엽서의 분석을 통해 식민지조선에서 국가신도가 선전된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15년의 신사사원규칙과 1925년 조선신궁의 건립으로 식민지조선은 제도적으로 국가신도의 체제 속에 편입된다. 그러나 식민지조선인들은 신사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무관심하여 신사를 참배하는 방법조차 알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 중에도 신사를 신성시 여기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조선신궁이 완공되고, 관련법규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식민지조선을 천황제 내셔널리즘(국가신도)의 체제 속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신사에 대한 전반적인 교화가 필요한 때, 사진그림엽서는 대량생산과 유통이 가능하며 선전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 국가신도를 뒷받침할 내용들을 선전하기 적합한 매체였다.

사진그림엽서 속에서 조선신궁은 5가지의 방식으로 선전되었다.

① 조선신궁과 조선의 이미지가 조합된 방식. 여기서 조선신궁은 문명의 상징으로서, 기생·장승·여인·가마꾼으로 표현된 식민지조선을 교화하는 공간으로 선전되었다.

② 도리이를 강조한 방식. 사진그림엽서의 중앙에 도리이를 크게 담아, 도리이의 모양이 신사-제국일본을 상징한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연상할 수 있도록 선전하였다. 도리이는 기호로서 신사에 대한 사회적 약속의 토대를 형성하고, 기호화된 단순한 이미지는 다양한 방면에 활용되어 신사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한다.

③ 계단을 아래에서 위로 응시하듯 담아 신성함을 선전하는 방식(양시).

④ 참배객과 벚꽃이 등장하는 방식.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조선신궁을 참배하는 모습과 신사의 주변에 핀 벚꽃의 이미지를 통해 식민지조선이 안정적으로 동화와 통치되고 있다는 의도를 담아 선전하였다.

⑤ 사진그림엽서의 측면이나 하단에 설명글을 추가한 방식. 엄숙하고 신성함이라는 용어와 신사의 풍경을 강조한 사진과 설명글 함께 사용하며 신사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태도를 선전하였다. 또한 설명글을 사용한 방식에서는 풍경을 언어에 의존해 설명하려 했던 니시키에적 재현방식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끝으로 금후의 과제에 대해 밝히면, 일제강점기 식민지조선의 신사의 사진그림엽서가 생산된 시기를 조사하여 조선신궁과 여타 식민지조선의 신사의 이미지 간의 상호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일제강점기 이미지를 통한 국가신도 체제의 선전을 살펴볼 수 있는 매체는 사진그림엽서 외에도 다양하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매체의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의 논의를 보완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과 병행하여 조선을 비롯해 대만과 관동주, 만주국과 같은 일제의 식민지·조차지의 신사들 간의 이미지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 참고문헌

- 이소마에 준이치, 제점숙 역(2016), 『근대 일본의 종교 담론과 계보:종교·신도·국가』, 논형, p.368.
- 김국화(2015), 「일제강점기 관제사진엽서를 통해 본 표상의 정치학 -1906년부터 1933년까지 발행된 관제사진엽서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4.
- 김대호(2015) 「20세기 남산 회현 자락의 변형, 시각적 지배와 기억의 전쟁」, 『도시연구:역사·사회·문화』 제13호, p.11, pp.18-19, p.22, p.26, pp.32-34.
- _____ (2009), 「1910년대~1930년대 초 경성신사와 지역사회의 관계-경성신사의 운영과 한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승일 외, 『일본의 식민지지배와 식민지적 근대』, 동북아역사재단. pp.65-78.
- _____ (2003), 「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신궁 건립과 운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2-34.
- 김백영, 박진한 외(2013), 「조선신궁과 식민지 동화주의의 공간정치」,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근대 도시 형성』, 심산출판사, p.200.

- 박진한·김창수, 박진한 외(2013), 「인천대신궁의 공간 변용과 재인천일본인」,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근대 도시 형성』, 심산출판사, p.255.
- 김수진(2011), 「식민 권력의 자기 기념과 시각적 선전-조선신궁기념사진집 『은뢰(恩賴)』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89집, p.119.
- 윤선자(2011), 「일제의 神社설립과 조선인의 神社인식」, 『역사학연구』 제42집, p.117, p.118, p.122.
- 최현식(2011), 「제국의 취향, 전시되는 “아리랑”-식민지 “아리랑 엽서”의 성격과 의미」, 『大東文化研究』 Vol.75.
- 유승훈(2009), 「근대 자료를 통해 본 금강산 관광과 이미지」, 『실천민속학연구』 Vol14, pp.339-368.
- 사다 이네코, 이한정·미즈노 다쓰로 편역(2009), 「조선인상기」, 『일본 작가들이 본 근대 조선』, 소명, p.341.
- 히우라 사토코(2007), 「식민지 신사와 학교의 관계」, 『일제 식민지 시기 새로 읽기』, 해안, p.130.
- 박규태(2006), 「국가신도와 ‘신사비종교론’: 근대일본 국민국가에서 신사의 역할」, 『‘일본’의 발명과 근대』, 이산, p.55.
- 권혁희(2005),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pp19-20, p.31, p.35, pp.55-62, p.68, p.70.
- 부산근대역사관(2003), 『사진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 부산근대역사관, p.52, p.136, p.240, p.284, p.332.
- 권혁희(2003), 「일제시대 사진엽서에 나타난 ‘재현의 정치학」, 『한국문화인류학』 35집 1호.
- 李孝德(2002), 박성관 역, 『표상 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p.37.
- 야마나카 하야토, 황달기 역(2001), 「미디어와 관광」, 『관광인류학의 이해』, 일신사, pp. 110-111.
-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재실 역(1998), 『이미지와 상징: 주술적-종교적 상징체계에 관한 시론』, 까치글방, pp.48-59.
- 岡本和己·小野芳郎(2016), 「京都の桜:その戦前期の景観形成過程」,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第81卷 第722号, p.1047.
- 中島三千男(2013), 『海外神社跡地の景観変容: さまざまな現在』, 御茶の水書房, p.18.
- 浦川和也(2005), 「朝鮮半島繪葉書の中の近代日本の眼差し」, 『KAN』 vol.23 Autumn. p.162.
- 青井哲人(2005), 『植民地神社と帝国日本』, 吉川弘文館, pp.44-45.
- 小笠原省三 編述(2004), 『海外神社史』, ゆまに書房, p.73, p.536.
- 青井哲人(1999), 「朝鮮の居留民奉斎神社と朝鮮総督府の神社政策-‘勝地’としての神社境内の形成およびその変容と持続-」, 『朝鮮学報』 172, p.83.
- 村上重良(1970), 『国家神道』, 岩波新書, p.1.
- 朝鮮總督府(1927), 『朝鮮神宮造営誌』, pp.1-2. p.3, p.55.
- 사진그림엽서출처
공동연구팀 자료 : <그림2,4,5,6,9,10,12,15,16,17,18>
해외신사적지 데이터베이스(<http://www.himoji.jp/database/db04/index.html>) :

<그림1,3,7,8,13,14>

『사진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 : <그림 11>

「群山紀行 一」, 『東亞日報』, 1923.6.24.

「‘大祭日’神社, ‘鳥居’에 日男女 縊首情死」, 『東亞日報』, 1924.10.20.

「朝鮮人三名을 畜犬식혀 咬傷」, 『東亞日報』1927.8.4.

「祖国독립과 言論에 몸바친 一生」, 『동아일보』, 1981.6.19.

「익옥수리조합」,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검색일: 2017.6.3.

■ Abstract

The Propagation of a State Shinto System in Colonized Joseon based on Photo and Picture Postcards

Han, Hyeonseok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the ways in which a state Shinto system was propagated in colonized Joseon, with a focus on photo and picture postcards depicting the Joseon shrines during the era of Japanese colonization. Photo and picture postcards started to gain huge popularity in Japan around the Russo-Japanese War in 1905, and were used as a medium for the Japanese Empire to ensure and propagate the legitimacy of its colonial ruling. The characteristics of photo and picture postcards depicting Joseon shrines were categorized into five groups as follows: ① a combination of jinja images and non-jinja images, ② torii, ③ composition, ④ worshippers and cherry blossoms, and ⑤ captions.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the ways in which a state Shinto system was propagated in colonized Joseon, and the facts involved such propagation, are analyzed.

Key words : postcards, Chosen-jingu, Shrine, State Shinto, propaganda, colony, assimilation.

■ 日本語抄録

絵はがきから見た植民地朝鮮における国家神道体制の宣伝と実像

韓賢石

本論文は、日帝強占期、朝鮮神宮を対象とした絵はがきを中心に植民地朝鮮における国家神道が宣伝された方式を分析したものだ。絵はがきは1905年、日露戦争を前後した時期から日本で大きな人気を集め始めており、帝国日本の植民地支配の正当性の確保と宣伝のための媒体としても活用された。朝鮮神宮の創建は、植民地朝鮮が本格的に国家神道の体制に編入されるきっかけとなり、朝鮮神宮のイメージは、植民地朝鮮を再現する絵はがきの主な絵柄で生産・流通されることにより国家神道の宣伝に利用されたと言える。本論文では、朝鮮神宮の絵はがきに表示される特徴を5つ（①神社と朝鮮のイメージの組み合わせ、②鳥居、③構図、④参拝客と桜、⑤キャプション）に分類し、これらの特徴に基づいて植民地朝鮮において国家神道の体制が宣伝された方法と実像について分析した。

キーワード：絵はがき、朝鮮神宮、神社、國家神道、宣伝、植民地、同化

<필자인적사항>

성명: 한현석

소속: 한국해양대학교

연락처(이메일): vaivai@hanmail.net

투고마감일: 2017.4.30

심사개시일: 2017.05.15

게재확정일: 2017.06.15